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2015년 10월 21일(수), 오후 2~4시

# 가야의 무장과 전쟁

김 두 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강연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연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연 5분 전까지 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강연 시작 이후부터는 강당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강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변경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2015년 10월 21일(수), 오후 2~4시

## 가야의 무장과 전쟁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055) 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세화플랜 Tel. 051) 868-0241

## I. 武裝과 戰爭에 대한 고고학의 제 관점

기록에 전하는 가야의 전쟁은 『三國史記』新羅本紀 속에 신라와의 黃山津口 싸움(77년, 탈해니사금21년)에서부터 대가야 멸망(562년, 진흥왕23년)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보인다. 주로 脫解-婆娑-祇摩尼師今 대에 걸쳐 집중(77, 94, 96, 102, 106, 108, 115, 116년)된 신라와의 쟁패를 다룬 초기기록을 포함하여 3~4세기대의 기사들까지도 그 기년과 사실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를 제외한다면 5세기대 이후의 후기가야의 전쟁을 언급한 것은 소지마립간3년(481년)에 고구려-말갈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加耶)으로서 참여한 기록과 진흥왕15년(554년) 관산성 싸움에서 백제에 가담(加良)하여 신라와 싸운 기록이 전하는 정도이다. 이밖에는 전기가야가 쇠퇴하는 직접 계기가 되기도 한 경자년(400년) 고구려군 남정이 광개토왕 비문에 전한다. 『日本書紀』에도 적지 않은 소국 쟁패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과 화친의 기사들을 통하여 5~6세기대 남부 사회의 정세 변화는 대략 파악되고 있다. 고고학 현상과도 일치하는 맥락도 적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쟁’이란 화두는 무형의 사건을 다루는 일이라 물질자료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 분야에서 다룰 소재는 한정되어 있다. 주어진 과제가 ‘갑옷과 투구로 보는 삼국시대 전쟁’이다.

갑옷과 투구, 즉 甲冑는 武具로서 대표적 武裝이다. 그 보유는 처음에는 지역 내 최고 수장층 묘역에 집중하고 집단 내 최상위 계층의 피장자에게 한정되었다가 차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갑주를 보유한 피장자

에게는 다른 공반 무장도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갑주의 보유 양상을 통하여 그 집단의 무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갑주도 포함하여 ‘가야의 武裝(力) 보유 양상과 그것을 통한 전술적 운용’ 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야 전체를 일관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발표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번에는 다소 산만하더라도 위 주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重裝騎兵戰術의 이해와 가야에서의 확립과정
2. 남정 이후의 사회변동과 무장 강화 및 왜의 무장
3. 무장 강소국 多羅와 후기가야 제소국의 역학관계

발표는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 진행코자 한다.

## II. 가야의 重裝騎兵

한반도 남부사회에서의 마필문화의 변화 양상을 각각 武裝과 儀裝을 나타내는 ‘重裝騎兵戰術’ 과 ‘馬裝制’ 를 화두로 파악한 바 있다. 중장기병전술이란 사람과 말이 모두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중장기병 또는 鎧馬武士-하고 長槍을 이용해 衝擊戰法을 구사하는 전술을 이른다. 그 전형은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등 많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이러한 중대한 전술의 변화에 대하여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전술의 성립은 4세기대 이후 북방의 여러 민족이 중원에 진출

해 왕조를 세운 오호십육국 시대의 도래에서 찾을 수 있다. 초원을 주된 활동 무대로 하였던 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의 농경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무기인 쇠뇌(弩)를 갖추고 대오가 정비된 농경사회의 정예군과 맞서려면 그들의 장기인 기병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대의 전열을 와해시키는 전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경쾌하고 날렵한 騎射의 전통적 전술 대신에 다소 기동성은 떨어지더라도 人馬가 중무장하는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무장은 방호적 측면의 것이고, 공격 측면에서 이 전술의 요체는 長槍을 이용한 衝擊戰法인데, 말 위에서 장창으로 충격전법을 구사하려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몸의 지탱이 중요하다. 4세기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마구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 전술의 발전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파악한다.

마상에서의 안정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실물 鎧子が 이때에 출현한다. 이 등자를 장치하기 위한 硬式鞍도 필수이다.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後輪垂直鞍은, 흔히 高鞍으로 장식을 위한 비실용 안장이란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座木突出鞍이며 앞뒤에서 몸을 지탱해주므로 양손을 활용한 중장기병전술의 충격전법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다. 말을 부리는데 가장 중요한 재갈에서도 ‘긴 인수(引手)’가 채택되어 보편화된 것도 ‘방추(房錘)’의 기능을 한 것으로서 중장기병전술의 채용과 관련이 있다. 즉, 1인기승의 마상에서 양손을 사용하기 위해 고삐를 놓았을 때, 이 인수가 추로서 기능하여 예측된 곳(말의 뒷목)에 고삐가 놓이게 함으로써 다시 고삐를 잡는 것을 쉽게 해준다. 중장기병과 무관한

북방지역에서는 계속 인수가 채택되지 않는데도, 유독 4세기 이후 동북아 재갈에 필수 부품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의 공격용 무기인 철모도 중장기병전술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개량되어 간다. 종래의 직기형 철모가 신부가 공부보다 길고 양날의 볼록렌즈형으로서 베는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삼국시대에 유행한 연미형 철모는 공부가 신부보다 길어지고 신부의 단면도 능형으로서 충격전법에 보다 적합한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철모는 신부는 물론 전장도 더 짧아지고 관부마저 거의 약화되어 전체가 찌르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중장기병전술이 매우 발달하였던 곳 중의 하나가 중국북방민족과의 싸움이 잦았던 고구려이다. 고분벽화를 통해서 그 운용방법의 일단을 알 수 있는데, 광개토왕대에서 장수왕대로 넘어가면서 전술의 큰 변화가 보인다. 즉, 안악3호분(357년)과 덕흥리고분(408년)의 행렬도에서 중장기병은 주인공의 마차를 둘러싼 호위병사들의 양측 가장 바깥쪽에 일렬로 배치되었다. 이에 반해 약수리고분에서 중장기병은 후미에 독립되어 포진한다. 개마무사 12인이 창을 곧추세우고 횡으로 밀집대형을 이루며 그 옆으로 칼을 든 지휘관과 기수인 사령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경기병이다. 이처럼 벽화를 통해서 중장기병의 편제가 호위병의 성격이 강한 친위병에서 독립된 밀집 대형의 重裝槍騎兵隊로 바뀌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체제가 잘 정비된 고구려 중장기병대의 운영양상을 살펴본 것이나, 이러한 전술이 성립되는 단계에는 장사 금분령21호묘 서진 도용(302년)의 예에서 유추하듯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실제 중장기병을 표현한 도용(陶俑), 화상전, 벽화 등은 동진시기의 자료로부터

북위, 남제, 서위, 북주 나아가 수당대 자료까지 알려져 있는데, 오호십육국 시기에 출현하기는 하나, 남북조시대에 가서 완비되고 가장 성행하였다. 중장기병은 기동력의 약화라는 기병으로서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隋唐대에는 경기병(輕騎兵)으로 전환되고 만다.

가야에서 완전한 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중장기병대의 성립은 마갑과 마주가 출토되는 5세기대 고구려군 남정 이후이다. 그 이전 4세기대는 1인기승과 창기병의 존재로서 기병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비록 마주·마갑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재갈, 등자, 안장 등 4세기대 마구에 보이는 여러 변화는 당시 새로이 전개되어가던 전술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세기대 급격히 부상한 낙동강하구역의 지역수장들은 마구와 함께 갑주도 부장하면서 무장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전 시기와는 판연히 다른 마구와 기마습속이 새로 전래되고 철제의 갑주가 제작, 사용되어 한 지역에서 유지되고 지역통제에 활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이 점에서 남부지방 기마문화 양상을 중장기병전술을 화두로 4세기대 도입기와 5세기(전반대) 확립기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

4세기대 김해와 부산을 중심으로한 낙동강하구역과 경주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을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당시 유행한 종장관갑들은 낙동강하구역은 물론 경주와 그 인근지역에서도 출토되고

〈표1〉 신라·가야 갑주보유 고분의 마구 공반양상

지역			4세기대			5-6세기			제외유구 (일람번호)
	전체	제외	마구 공반	갑주 만	마갑 마주	마구 공반	갑주 만	마갑 마주	
가야	115	4	10	18	0	62	21	18	27,49,77,100
신라	49	8	1	15	0	21	4	3	24,28,30,35, 36,38,40,43
계	164	12	11	33	0	83	25	21	

\*대상 자료는 [복천박물관, 『韓國의 古代甲冑』, 2010]에서 참조

있다. 갑주연구자는 갑주에만 주목하여 연구를 행하나, 이를 마구와의 공반 관계로서 폭을 넓혀 파악하면 〈표1〉에

서 보는 것처럼 4세기대 가야와 신라로 불리는 지역의 무장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중장기병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중심-주변의 관계는 반증된다.

### III. 고구려군 남정과 사회변동

4세기대의 전기가야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는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촉발된다. 남정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평가절하 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발표자와는 다른 편년관의 차이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는 발표자가 밝힌 남정으로 촉발된 가야사회의 대변혁과 획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해명해야할 책무가 있다.

남정 이후 전기가야 사회는 여러 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보인다. 그 첫째는 묘제의 변화이다. 전기가야의 중핵 중 동력을 상실한 김해의 拘耶國(대성동유적)조차도 관상이 대형 판상석에서 잔 할석으로 바뀌는 변화가 간취된다. 다른 중핵인 瀆盧國(복천동유적)에서는 훨씬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凹床을 가진 토착묘제의 계승, 석곽묘의 채용, 잔 할석으로 된 平床의 목곽묘 등장 등 세 갈래로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전통의 변형 凹床과 석곽묘의 결합이 이후 수장묘의 묘제로 채택된다.

둘째는 토기 문화의 변화이다. 외절구연고배를 지표로 한 고식도 질토기가 변화 공존하는 한편으로 신식도질토기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다양한 試作品이 만들어진다. 한 고분에서 같은 형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변화 많은 토기 형식들이 출토되는 시기이다. 고배가 長大化한



것은 공통 특징이다. 남정 직후인 5세기 1/4분기는 공인과 정보가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시기이다. 이는 당시의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셋째는 戰備 擴充의 측면이다. 고구려 철기군의 위력을 겪었던 영남 사회는 戰備 보완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範型을 고구려에서 구하고 있다. 이때부터 마구나 갑주에도 고구려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먼저 마구에서는 ‘고자형 環板轡’의 독자적 고안이 주목된다. 갑주는 중장기병 장구의 완비가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출토된 바 없었던 마주와 마갑이 이 지역에서 출토되기 시작한다. 찰갑이 크게 유행하며 이전과 다른 소찰 형식을 사용한다. 철모는 연미형이 대세를 이룬다. 철촉은 규두형 대신 사두형과 유엽형이 주류가 되며 이들은 기능적으로 분화한다. 여기에 기병에 적합한 胡籜이 사용된다.

이처럼 많은 변화의 대부분이 고구려군 남정 직후인 5세기 1/4분기에 이루어졌다. 1/4분기를 끝으로 대성동유적에는 수장묘의 축조가 중단되나 복천동유적에서는 한동안 탄력을 받아 당시의 변혁을 주도하다 斯盧國 성장에 발판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화두를 돌려 남정 전후의 왜의 활동과 그 역량에 대해 무장을 중심으로 언급한다면, 야마토정권에 의한 파병 내지는 적어도 용병이 활동하였다는 일본학계의 해석과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구가 출토되지 않아 기병의 존재가 아직 요원하였던 왜의 중앙에서조차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短劍(단병)이나 鉞(장병)은 가야에서는 삼한시대를 끝으로 삼국시대에는 이미 용도 폐기된 무기이다. 남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100여년이나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일본열도에서는 여전히 주력무기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철의 공급선을 쥐고 있었던 가야로부터의 ‘武器 禁輸措置’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무장수준으로 바다를 건너와 행하는 한반도에서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정 이후 가야·신라의 武器로서 종래의 縱長板板甲이 쇠퇴하고 札甲이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帶金式板甲을 모두 왜계 갑주로 간주하는 작금의 연구 경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철복륜, 절판복륜, 개폐에 사용된 고리경첩 등은 결코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

#### IV. 多羅國의 무장과 후기가야 제소국

고구려의 남정을 계기로 낙동강하구역의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되고 이에 연동하여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阿羅國(5세기 2/4분기)-多羅國, 非火國(2/4후반~3/4전반)-加羅國(3/4분기)이 순차 소국으로 급성장한다. 이들 중에는 토착세력이 중심이 되어 변혁을 이룬 경우(아라국)나 무력을 앞세워 토착세력을 제압한 경우(다라국)도 있으며 아예 신흥소국으로 성장한 경우(가라국)도 있다. 이는 장법의 변화와 차이, 부장품의 질과 양의 변화로서 알 수 있다.

이 후기가야 제소국들은 각각 독자의 제의권, 자치권, 교섭권을 갖고 상호간의 관계는 성립단계부터 分節的 體系를 이루고 있었다. 각각의 거점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문물교류와 소통은 활발하였으나 상호 불가침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갔다. 따라서 각 소국의 세력 확장과 진출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는 남쪽 활로가 열렸으며, 가라는 서쪽 진출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화는 동쪽으로 경주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이러한 소국 간의 관계와 입지가 크게 작용한다.

이 경우 소국들의 중앙에 입지하여 활로가 막혔던 다라국이 힘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武裝力에 기인한다. 사실 다라국의 수장묘역인 옥전유적에 조성된 고총고분은 그 수나 규모에서 이웃한 아라국의 함안 도항리 유적, 비화국의 창녕 계남리·교동·송현동유적, 가라국의 고령 지산동 유적에 견줄 바가 못 된다.

그럼에도 중장기병으로 무장한 그들의 무력 위세와 문화 창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強小國이다. 이를 보여주는 정점에 옥전M3 호분이 있다. 금공품에서 능삼문이란 새로운 주연부 도안이 채용되고, 가야식 용봉문 환두대도나 ‘卵形伏板附冑’란 신형식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역량을 잘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

Dotted lines for writing cont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 일시: 2015.10.21.~11.18.매주 수, 오후 2~4시(2시간)
-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참가방법: 현장접수
- 문의: 055-320-6844~5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	10.21.	가야의 무장과 전쟁	김 두 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2	10.28.	고대의 갑옷과 투구	이 현 주 정관박물관장	
3	11.4.	고대갑주의 현대적 활용 - 드라마, 영화 속 의상	조 현 진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교수	
4	11.11.	과학으로 복원한 갑옷	김미도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5	11.18	갑옷 전시를 열기까지	김 혁 중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